

완도군,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추진

해상 운송비·생활필수품 물류비 등 보조 택배·숙박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경제적 비용 경감·삶의 질 향상 목표

완도군이 지리적 특성으로 불편을 겪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본격 나선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도서 지역 주민들의 보

편적 생활 복지 실현을 목표로 올해 다각적인 '섬 주민 정주·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부속 도서 생활필수품 물류비 보조 ▲생활물류 택배 운임 지원 ▲여객선 결항 시 숙박비 지원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은 군이 8개 읍·면을 오가는 내항화물 및 도선 사업자와 직접 업무 협약을 맺고 선사 측에 운송비를 전액 지급해 주민들의 물가 부담을 차단한다.

특히 접근성이 열악한 금일읍 충도·다량도·원

도, 노화읍 남도·서남도, 소안면 황간도, 금당면 비경도, 보길도 예작도 등 8개 낙도 부속 도서를 대상으로 생활필수품 물류비를 보조한다.

이들 지역은 농협 하나로마트를 전담 생활필수품 물류 센터로 공식 지정해 물류비와 운영 경비를 군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생활필수품 공급망을 유지하게 된다.

무엇보다 육지보다 비싼 추가 배송비로 고통받는 섬 주민들을 위해 보내고 받는 택배 1건당 3천원씩,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의 운임을 현금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가계 보편을 이끈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 발이 묶인 도서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숙박비도 1인당 1회 4만원 이내,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보장한다.

숙박비 지원 대상은 해당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주민에 한하며, 숙박일 기준 10일 이내에 영수증과 승선권을 첨부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택배 운임과 숙박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명시된 증명 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맞춤형 밀착 지원 사업을 통해 육지에 비해 턱없이 높은 도서 지역의 경제적 비용을 크게 낮추고, 지역 소멸과 인구 유출을 막는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상 교통의 물리적 한계로 일상생활에서 소외받는 섬 주민들이 단 한명도 없도록 탄탄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형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지난해 '2025 강진피싱마스터스' 강진군수배 감성동선상부시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2026 강진피싱마스터스' 대장정 돌입

5-11월 7회 개최...총상금 2억원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 거점 도약

강진군이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 도시로의 비상을 꿈꾸며 역대급 규모의 낚시 축제인 '2026 강진피싱마스터스' 대회를 열고 전국 낚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과 강진피싱마스터스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마량항 일원에서 펼쳐지는 대회 참가 신청을 지난 6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해양레저 문화의 저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2억원 상당의 시상금과 경품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어 전국 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대회는 오는 5월9일 화웨이컵 불바리 단일 대회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어 6월27일 군수배 감성동 대회, 10월 17-18일 문어 이틀대회, 11월 14-15일 주꾸미 이틀대회, 11월28일 혼다컵 감성동 대회 등 총 7회에 걸쳐 연인원 1천800여 명의 참가자가 강진 앞바다에서 짜릿한 손맛을 거둔다.

참가 신청은 마스터스MGM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 '강진피싱마

스터스'를 통해서도 실시간 대회 소식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대회는 SDN, 혼다, 화웨이 등 유수의 기업과 전문 낚시용품 회사들이 대거 후원 및 협찬에 참여해 축제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피싱마스터스는 마량항의 아름다운 낙조와 풍부한 어족 자원을 전국민에게 알리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대회 운영을 통해 강진군이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암군, 왕인 어린이 독서골든벨 참가자 모집

내달 11일 왕인문화축제서 초등 3-6학년 100명 경연

영암군이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 올바른 책 읽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왕인 어린이 독서골든벨' 참가자를 모집한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6 영암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 마련된 핵심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11일 왕인박사유적지 축제 주무대에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6학년 까지 학생 선착순 100명이며, 사전에 지정된 도서를 읽고 다양한 유형의 퀴즈를 푸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경연을 펼친다.

올해 지정 도서는 '시간 여행자의 책', '뚝뚝한 역사신문:삼국 시대 편', '초등학생을 위한 지구

환경 지식 4' 등 3권으로 영암·삼호·학산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다.

경연 결과에 따라 최후의 1인을 포함한 총 11명의 학생에게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시상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하거나 군 도서관에 개별적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어린이들이 축제장에서 왕인박사의 학문 정신을 되새기며 독서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의미 있는 추억을 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성육문화재단, 제49회 장학금·기념회상 시상식 성료

대학생 등 57명 대상 2억여만원 지급

재단법인 성육문화재단이 지역사회의 미래 인재 육성과 따뜻한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장학금 전달·유공자 시상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5일 성육문화재단에 따르면 최근 이화일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49회 성육 장학금 전달식 및 제15회 박순심 여사 기념회상 시상식'을 가졌다.

재단은 전국 25개 대학교 학생 55명에게 1학기 등록금 전액인 2억9천여만원을 지급하고, 판소리 특기생 2명에게도 상반기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이러진 시상식에서는 42년간 소의 아동을 헌신적으로 돌본 김미자 목포아동원 원장이 영예의 성육상을 수상해 상패와 상금 5천만원을 품

에 안았다. 또한 박순심 여사 기념회상 부문에서는 목포산정동의 고경옥씨가 효부상을, 해남공도 1학년 김은지 학생이 모범소녀상을 각각 수상하며 상패와 1천만원의 상금을 수여받았다.



지난 1977년 조선내화 창업자인 고(故) 이훈동 선생이 설립한 성육문화재단은 49년 동안 총 5천788명에게 약 109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 나눔 문화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성육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재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군민에게 환원해야"

김원중 무안군의회 의원 자유발언 수익 30% 환원·채권형 참여 제안

무안군의회 김원중 의원이 지역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창출된 개발 이익을 군민 모두와 나누는 이익공유제 명문화와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수익이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소멸을 막을 군민 연금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

그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중 최소 30%를 군민에게 환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인허가 조건에 이익 공유 기준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원된 재원을 군민 기본소득과 마을 기금, 에너지 복지 재원으로 전환해 지역 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튼튼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정보와 자본



이 부족한 농촌 고령층이 소외되거나 자본가가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원금이 보전되는 '채권형 구조'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과 읍·면 공청회가 단순한 사업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실행 로드맵을 군민과 치열하게 고민하는 실질적인 정책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무안의 햇빛과 바람은 군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에너지 전환의 결실이 담장 너머 사업자의 주머니가 아닌 군민들의 식탁과 복지로 흐르도록 조속히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자연속 돌레길 걸으며 봄 기운 담아가세요"

해남 '달마고도 힐링 걷기 축제' 개최 오는 28-29일...산악인 엄홍길 동반

해남군이 한반도의 첫 봄을 알리는 명품 걷기 길 달마고도에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힐링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송치면 달마산 일원에서 '걷는 순간이 곧 힐링'이라는 주제로 '2026 땅끝해남 달마고도 힐링걷기'를 운영한다.

특히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세계 최초로 허말라야 8천m급 16좌를 완등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산행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코스 곳곳에 스탬프 투어를 강화해 참가자들이 완주 인증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인생네컷 촬영 부스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아울러 달마고도 4코스에서는 전용 풀을 활용해 상·하체 전신을 사용하는 건강 운동인 노르딕 워킹 체험이 열려 삼나무 숲을 지나며 올바른 걷기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사장 일원에서는 해남의 우수한



지난해 열린 '힐링걷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돌레길을 걷고 있다. <해남군 제공>

농수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달마장터도 함께 운영돼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행사가 열리는 달마고도는 미항사가 자리한 달마산에 조성된 17.74km의 돌레길로, 중장비를 배제하고 사람의 손으로 직접 돌을 날라 옛길을 복원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명품 길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한반도 첫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달마고도 걷기 축제에서 많은 방문객이 일상의 활기를 되찾고 해남의 멋과 맛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군, 청년 활동 포인트제 신규 도입

18-49세 年 15만점 지역상품권 지급

진도군이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보상 시책을 추진한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청년들이 다양한 지역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점수로 환산해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 활동 포인트제'를 올해 새롭게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참여 청년들은 군정 및 지역 명소 홍보, 군 주관 축제와 행사 참석, 청년센터 프로그램 수강, 자원봉사 등 지정된 활동을 수행하면 항목별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누적된 포인트는 1인당 연간 최대 15만점까지 인정되며, 1만점 이상 모이면 1포인트당 1원 비율로 진도아리랑상품권 카드로 전환이 가능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도 높은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밀어붙여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원 기자